

캠퍼스에 스며드는 ‘혐중’ 정서… 불안한 유학생들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연이은 대규모 ‘혐중 시위’로 불안감이 고조된 최근, 대학가도 반중(反中) 정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화장조(화교·짱개·조선족)’ 같은 혐오 표현이 등장한 것도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최근의 반중 인식에는 새로운 점이 있다. 중장년층보다는 청년층에서 더 반중 의식이 두드러진다는 점과 혐오가 생활밀착적이고 일상적으로 녹아있다는 측면이다. 우리학교 중국인 유학생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봤다.

불안한 중국인 유학생들 “신변 위협 느낀다”

한국인의 반중 인식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중국인을 향한 실제 위협 사례까지 보고되자 유학생 내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별공’, ‘짱개’ 등 중국 혐오가 포함된 신고 집회는 2023년 13건, 2024년 15건에서 2025년(1~9월) 51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Shen Siyue(미디어학 2025) 씨는 “올해 처음 한국에 왔지만, 한국 사회의 반중 감정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며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시선을 받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Moo Yu(미디어학 2025) 씨는 “주변 중국인 유학생 친구들 대부분이 인종차별을 겪었다”며 “한국 내 혐중 시위가 심해져 신변에 위협이 될까 봐 여행을 취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학교

밖에서는 신분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리학교 외국인 재학생 중 중국인 비율은 2023년 82.4%(4,433명), 2024년 80.3%(4,200명), 2025년 77.7%(3,81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리학교를 이루는 주요 구성원이다. 하지만 인원이 많은 만큼 국적을 이유로 한 혐오나 차별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Chang Hsin Yun(미디어학 2023) 씨는 “대만 출신이라 비교적 괜찮지만, 중국에서 온 친구들은 불편한 시선을 받는 경우가 최근에 더 심해졌다”며 “특히 수업이나 팀 프로젝트 발표에서 중국 학생을 배제하거나, 심하면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Li Qiang(경영학 2022) 씨 역시 “교양 수업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다. 올해

Moo Yu 씨

주변 중국인 유학생 친구들 대부분이 인종차별을 겪었다. 한국 내 혐중 시위가 심해져 신변에 위협이 될까 봐 여행을 취소하기도 했다.

Li Qiang 씨

교양 수업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기분을 느꼈다.

회기공인중개사무소 A 소장

일부 중국 유학생의 소음이나 청결 문제 경험에 누적되면서 10년 전부터 ‘중국인 세입자는 받지 않겠다’는 말이 흔해지고 2~3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격해졌다.

초 국제제 글로벌교육지원팀이 다국적 유학생 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도 유학생들의 수업·팀 프로젝트에서의 소외감이 전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세입자 기피 경향도 에타에는 허위·왜곡 정보까지

회기동 일대에서는 중국인 세입자를 꺼리는 분위기도 자리 잡았다. 회기공인중개사무소 A 소장은 “15년 전에는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며 “일부 중국 유학생의 소음이나 청결 문제 경험에 누적되면서 10년 전부터 ‘중국인 세입자는 받지 않겠다’는 말이 흔해지고 2~3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격해졌다”고 말했다. 노골적인 혐오 표현을 당했다는 사례도 존재했다. 자율전공 학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A 씨는 “중국어로 대화하면서 걸어가는데 ‘짱개’라고 수군거리는 걸

들은 적이 있다”며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혐오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매우 슬펐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중심으로 중국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게시물과 댓글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전에는 팀 프로젝트 등 학업 관련 토로가 대다수였다면, 최근에는 “중국인이 몰려오니 호신용품 들고 다녀 애들아”, “무비자로 와서 인신매매해도 모르겠네” 등 중국 관련 허위·왜곡 정보를 담은 글도 엿보였다. Moo Yu 씨는 “SNS에서 혐중 표현을 볼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아프다”라며 “한국에 호감을 가지고 유학을 왔지만, 가끔 유학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털어놨다. Zhong Aluo(글로벌경영학 석사 3기) 씨 역시 “현실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친절했지만, 온라인에서 보는 모

습은 많이 달랐다”고 말했다.

혐오 표현 지양하고 학내 보호 방법 찾아야

글로벌교육지원팀은 한국어·중국어·영어가 가능한 전문 상담사를 상시 배치해 차별·혐오 피해 발생 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소수자 인권 위원회는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유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유학생을 위한 전용 상담체계와 언어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3학생이 학내에서 안전하게 발화하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자리를 함께 만드는 것이 학생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캠퍼스 엄규민(경영학 2020) 총학생회장은 “총장님과 부총장님 역시 유학생들이 적응을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많이 표하신다”며 “총유학생회, 유학생들과의 소통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어 한국 학생들이 유학생들에게 반감을 가지는 어려움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국민대 사회학과 최향섭 교수는 “가짜 뉴스들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면서 반중 정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공식 언론 채널을 통해 검증된 정보에 접근하고, 중국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임동균 교수는 “반중 정서에 매몰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G2인 중국과 앞으로 어떻게 슬기롭게 공존할 것인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학주보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

